

## 글을 통해 안무작업을 사유할 수 있는가?

### Possibilities of Choreographic Thinking through Text

박진덕 (Park, Jindeok)\*

Jonathan Burrows(2022). **안무가의 핸드북** (정다슬, 한석진 역). 작업실유령. (원저출판 2010).

2022년 가을,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안무가 조나단 버로우스(Jonathan Burrows)의 『안무가의 핸드북』이라는 책이 정다슬 안무가와 한석진 연구가에 의해 번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웠다. 영국에서 한참 석사학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2010년에 영국에서 초판이 나왔었고, 나를 포함한 많은 영국의 무용학도들이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다.

조나단 안무가의 작업에는 항상 작곡가 마테오 파지온(Matteo Fargion)과 함께였다. 조나단과 마테오는 3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함께 작업하며 춤, 음악, 퍼포먼스와 코미디를 아우르는 신체 작업들을 이어왔다. 또한, 어떤 감각에서의 관객과의 대화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이들의 작업에 중요한 부분이었다.

30년을 함께 작업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예술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될까? 어딘가에서 얼핏 대화 중 오갔던 이야기가 떠오른다.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작업 파트너를 만났다면 그것만으로 성공한 예술가일 것이다, 마치 머스 커닝햄과 존케이저처럼.

흥미롭게도 두 예술가 모두 클래식 발레, 음악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이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념에 술에 가까운 안무방식은 클래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마테오가 클래식 음악을 공부함으로써 악보를 읽는 법을 배우고, 음악의 길이를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나단의 경우에도 발레의 움직임 습득이 움직임을 분절하고 움직임을 음악적 리듬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감각들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물론 안무작업에 있어 클래식 교육이 필수라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모든 클래식을 배운 예술가들이 조나단과 마테오와 같은 방향의 작업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예술가의 경우에는 전통음악과 발레에 대한 지식이 움직임을 해체하고 움직임을 음악과 재조합하여 창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 것이다.

런던 컨템포러리 댄스 스쿨(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에 재학하던 시절, 좋은 기회를 얻어 작곡가 마테오의 워크숍에 참여를 하였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그 시절에 나는 화려한 춤 테크닉이 없는 하지만 언어와 리듬과 움직임이 주된 그들의 작업을 보며 이것을 무용공연이라 여길 수 있는

\* 한양대학교 에리카 무용예술학과 조교수, jinduks@hanyang.ac.kr

가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한 의문과 함께 그림에도 불구하고 흥미롭다!라 여기며 매번 워크숍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참여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춤을 추는 방식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아닌 안무의 과정을 공유하고 다양한 안무의 방식을 실습해보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의 수업은 나에게서는 너무나 흥미로웠다.

당시 마테오의 설명을 되새겨 보자면 이 책은 조나단과 함께 공연 리허설을 하며 워크숍을 진행하며 오가던 답소들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었다고 한다. 이 두 사람의 안무노트인 셈이다. 책을 보면 느껴지겠지만 글이 조화롭게 연결이 되는 서술 방식이 아니라 가끔은 두 예술가의 단발적인 생각들이 적혀있기도 하다. 콜라주 방식의 글들이 한 문장과 다음 문장 사이에는 어떤 생각들과 어떤 작업들이 오고 갔을 까하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마치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생각의 틈을 열어 주는 것 같다.

실제 이 책에서 의도적으로 사진은 실지 않았다고 서문에서 얘기하고 있다. 춤의 이미지가 독자의 독특한 방식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될 우려를 표한다고 적혀있다.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안무가의 핸드북』은 예술가들의 안무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담긴 이 책을 통해서 안무에 관한 답을 제시하려는 목적이기 보다는, 각자가 하고 있는 안무와 춤에 대한 생각들과 더불어 더욱 풍부한 논쟁거리를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일 것이다.

다수의 소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의 내용은 이렇하다. 먼저 대략 50개의 소주제를 나의 기준에서 두 분류로 나누어 보자면, 안무의 재료에 관한 주제와 공연 제작과 연관된 주제이다. 안무의 재료에 관한 이야기로는 반복, 자르고 붙이기, 규칙 깨기, 연속성, 정지, 스코어, 우연성에 관한 탐구와 사유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분류로서는 안무를 통해 공연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주제들로 관객, 인터뷰, 스튜디오, 지원금, 독창성, 관계, 시장, 공연 등이 이에 포함 될 수 있을 것 같다.

2010년 당시 『안무가의 핸드북』을 마치 지침서처럼 함께하며 석사학위를 위한 공연을 안무하였다. 특히, 안무 재료로서의 “반복”(p.22-40)에 관한 흥미로운 지점들을 활용하였다. 관객이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 어떤 움직임은 한번이상 반복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며, 이러한 반복은 또한 어떤 리듬을 만들어 낸다. 관객들은 반복적인 동작을 보게 되면 다음 장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단, 안무가는 어느 시간동안 반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이 중요할 것이다. 너무 많은 수의 반복은 관객을 지루하게 만들 것이며, 너무 적은 수의 반복은 관객이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나의 석사학위를 위한 안무 작업 『Portrait and A Dream』(2010)에서도 순간적으로 구상되는 즉흥움직임의 반복을 통해 매번 다른 움직임들이 어떤 리듬을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 한 움직임이 기대치 못한 어떤 다른 움직임으로 파생되는지에 대한 신체적 탐구를 하였다. 반복이라는 안무재료는 새롭지 않고 간단하며 보편적이지만, 반복이라는 재료를 출발점으로 수많은 다양한 방식으로의 안무적 결과를 낼 수 있기에 오랜 시간을 거쳐 많은 안무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흥미로운 안무의 재료라 여겨진다.

실제로 조나단과 마테오의 작업에서도 반복이 굉장히 다채롭게 활용되었다. 『Hands』(1995)라는 영상 작업에서는 손만 확대해서 카메라를 잡아 손의 제스처를 보여주는데, 반복적인 손동작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손동작의 변화로 이어간다. 『Counting To Hundred』(2013)라는 작품은 제목에서도 추측 가능하듯 1에서 100까지 숫자를 반복적으로 발화한다. 숫자세기를 발화하는 방식에서 다양한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며 말하기와 더불어 움직임의 반복과 변화가 이어지며 풍자적인 요소까지 더해져 관객의 흥미를 유발한다.

『Counting To Hundred』와 같이 그들의 작업에는 항상 텍스트가 사용된다. 텍스트와 움직임을 매개하고 이 두 매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흥미로운 리듬을 찾는다. 텍스트의 선택은 그들이 어딘가에서 들었거나 보았거나, 현재 들리거나 보이는 것을 음악적으로 묘사한다고 한다.

“만약 말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작업하는 움직임이나 이미지에서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감출 수 있는가?”(p. 238). 말하기가 포함된 공연은 움직임만 있는 공연으로부터 다른 감각을 만들어내고 전달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에 무게를 더 신을 것인가이다. 언어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강력하다. 말하기가 있음으로서 언어가 주는 명확성 때문에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게 인지될 수 있고 이는 움직임으로부터 많은 상상을 줄 수 있는 틈을 단절시켜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 움직임과 말하기가 함께 흥미로운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 두 매체는 함께 돋보이게 될 것이다.

조나단과 마테오의 작업에서 텍스트는 안무와 공연을 위한 스코어가 된다. 무용에서의 스코어는 음악에서 악보처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품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또는 규칙정도로 해석이 되겠다. 『안무가의 핸드북』에서 마치 시 같은 텍스트를 곳곳에 발견할 수 있다. 단어와 단어 간의 전형적이지 않은 흥미로운 띄어쓰기로 텍스트가 새롭게 읽혀지고 새로운 리듬이 형성된다. 텍스트를 스코어로 활용하여 움직임과 함께 다양한 리듬을 실험하는 그들의 안무 방식은 다양한 접근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것이 스코어가 지닌 매력이라 여겨진다.

2023년 지금 우리는 동시대적 개념예술을 기반으로 한 안무작업에 많이 익숙해져 있는 듯하다. 다양한 무용학자, 예술가들이 컨템포러리 안무에 대한 시각에 대해 세미나, 논문, 인터뷰 방식으로 개념을 논의하고 작업한 덕일 것이다. 화려한 움직임 테크닉이 없어도 때로는 춤추는 몸이 부재하였음에도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안무가 새로운 감각을 창출해내는 동시대적 움직임이라 여기며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 결과보다는 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기 시작하였으며, 관객과의 경계에 대한, 타 장르간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들이 일어난다. 『안무가의 핸드북』의 서문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다. “안무란 외로운 작업일 수 있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듣는 데서 기쁨을 발견하곤 했다”(p. 10). 이 인용문을 보면 조나단과 마테오는 다른 안무가들의 안무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토론하는데서 자신들의 안무에 많은 힘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결과물로서 작품을 시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안무과정에서 떠오르는 사유들에 질문을 던지고 토론하고 공유하는 것이 안무의 중요한 부분이자 지속적인 작업을 이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질문을 던져본다. 글을 통해 안무를 사유할 수 있는가? 신체를 통한 실습이 아닌 책을 통해 안무를 사유할 수 있는가? 많은 동시대 작업들이 안무 과정에 집중하게 되면서 안무와 글쓰기의 연관성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있다. 더불어 안무작업에서의 기록을 위한 아카이빙에 대한 중요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2019년 서울국제안무워크숍 ‘글로벌 완성한 안무’에서는 ‘안무노트 쓰기를 통한 작업과정의 아카이빙’이라는 주제로 글로써 안무과정을 아카이빙하기 그리고 신체 감각을 언어화하는 글의 중요성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었다. 안무작업에 있어서 글을 통한 안무의 사유라면, 신체로 탐구한 것을 언어로 옮겨보고 다시 언어를 신체 탐구로 이어가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 안에서 점점 더 명확한 자신의 안무 세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또한 조나단과 마테오의 『안무가의 핸드북』의 명확한 의도와 같이 글은 안무에 관해 다른 예술가들과 그리고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